

문화전당 일대에 中·日·베트남문화원 유치 추진

광주 동구, 中과 협의 착수... 부지 제공 제의

노회용 청장 “문화허브 기반 다지겠다”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일대에 중국·베트남·일본문화원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회용 동구청장은 10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동구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일본 문화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오는 2015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데,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국·베트남·일본문화원을 유치해 아시아 문화예술 중심지로써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는 게 노 청장의 복안이다. 노 청장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인근에 있는 동구 소유 부지 등을 선정, 중

국·베트남·일본문화원 측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는 중국문화원 유치를 위해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광주에 중국영사관과 중국인 학교 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국문화원 유치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베트남 측과도 조만간 문화원 유치를 위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구가 이들 3개 국의 문화원을 선택한 이유는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베트남·일본인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동구 거주 외국인 수는 모두 275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68

명)·베트남(46명)·일본인(12명) 수는 모두 126명이며 전체 외국인의 45.8%에 이른다. 노 청장은 “현재 아시아 각국 문화원 유치와 관련해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 중국 등 3개국과 문화원 유치와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원이 동구에 들어선다면 아시아 문화·예술의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공급·교류되면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활성화는 물론 쇠퇴한 도심재생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청장은 특히 “이들 나라와 인적·경

제적 교류가 급증하는데도, 문화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에서 이들의 문화·예술·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측 간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는 부지만 제공해주면 된다. 건축 문제는 각 나라에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또 “이들 문화원이 유치되면 문화전당을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 최고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동구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시 ‘세계 4대 미항’ 이미지 회복 안간힘

‘세계 4대 미항’을 추구하는 여수시가 최근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추락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낙포동 원유2부두의 우이산호 충돌에 따른 기름유출 사고로 164㎥(해경 추정)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돼 11일째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여수의 동북부로 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인 가막만은 사고 현장과 멀리 떨어져 기름유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사고 이후 지역 특산수산물인 굴과 새조개의 판로가 막히는 등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발생한 사고를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란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정부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여수’라는 지역명이 사고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어 지역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상일 여수시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언론과 정부 기관에서 ‘여수알바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사용해 마치 여수 앞바다가 온통 기름투성이로 오염된 것인 양 전국에 알려지고 있다”며 명칭을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는 10일 “중앙정부와 GS칼텍스에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정확한 진상 규명, 주민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여수시의회는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음에도 관계 당국과 사건 책임자는 불성실한 대처로 피해지역 주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생업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설상가상 구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

고 있으며 지역 농수산물 판로가 막히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제2, 제3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영구보상과 신덕마을 이주대책 수립 ▲정유사와 유조선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합리적인 보상 조속 조속 시행 ▲보상을 위한 여수시의 증거자료 수집 지원 등을 촉구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닭·오리고기 소비 60~70% 급감

AI여파 축산농가 침울

범정부차원 소비촉진행사

나주 농장 의심신고 ‘음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닭·오리고기 소비가 60~70%가량 급감하자 정부가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10일 나주 봉황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간이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위축된 닭·오리 고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소비촉진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전국 1000여개 하나로마트의 가금육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9일 기준 신선 닭고기의 하루 판매액은 전월보다 59.4% 감소했고 오리고기 판매액은 7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은 농가 돕기 차원에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통마진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나주 농장에는 닭 5만여 마리를 사육중이며, 지난 8일 30 마리가 죽은 데 이어 9일에도 100여 마리가 폐사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 정밀 병성감정 중이다. 전남도는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가축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방역을 강화했다. 앞서 여수 신항에서 발견된 물오리 폐사체와 영암 신북 육용오리 농장의 오리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닭, 오리고기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북구 NC백화점 앞에서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오리고기 시식회’를 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폐사 결과도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지난 9일 광양시 진상면 수어전 급천교 부근에서 잡던 폐사한 야생철새 10여

마리를 긴급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12일 준공식... 300여명 참석

남극 2개이상 상설기지 보유 10번째 국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기자인 장보고과학기지의 준공식을 오는 12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김예동 극지연구소장, 미국·뉴질랜드·이탈리아 과학기지 대표, 현지 건설단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보고기지가 준공하면 우리나라는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설기지를 보유한 10번째 국가가 된다. 총 사업비 1047억원이 투입된 장보고과학기지는 생활동, 연구동, 발전동 등 총면적 4458㎡에 이르는 16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최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영하 40도의 기온과 초속 65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항공기에 적용되는 유체역학적 디자인이 설계에 반영됐다. 또 태양광, 풍력에너지와 발전기 폐열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화석연료 절감형 친환경 기지로 지어졌다. 장보고기지에서 올해 말까지 상주할 1차 월동연구대 15명은 빙하, 운석, 오존층, 극한지 공학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극한지 플랜트, 장비, 로봇, 신소재 등 극한지 실용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산·학·연에 장보고과학기지를 실험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안 대척 폐염전 부지에

KT, 태양광 발전소 건설

KT는 신안군 대척면 폐염전 부지에 7.5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10일 밝혔다. KT컨소시엄이 지난해 말 수주한 대척 태양광 발전소는 통신사가 최초로 진행하는 대형 태양광 구축 사업으로, 2300여가구 1만 명에게 15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KT는 이번 공사에서 태양전지와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버터 등 발전기자재와 시스템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자체 개발한 관제 시스템도 공급한다. KT G&E부문 신규식 부사장은 “이번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발관산아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력난과 원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1226-증-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박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라남도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노안교정

노안교정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전 화
집:361-3515 각화지점:268-6163
앙 동 지 점:362-6164 동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 시 형 건강기능식품 **글루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후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4m NAVER 백제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